
 금융위원회	보도설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8.26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담 당 자	김 종 식 사무관 (02-2100-2864)	

제 목 : ‘의사·약사,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 될 듯’ 제하 기사(8.26일자 조선비즈)에 대한 설명

1. 기사내용

- 조선비즈는 8.26일자 ‘의사·약사,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’ 제하 기사에서, 다음의 내용을 보도
 - “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(TCB) 대출 대상에서 의사,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.”
 - “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, 기술신용평가(TCB)사들은 ‘기술금융 가이드라인’ 개정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·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.”
 - “이달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.”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

-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·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‘기술금융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(‘14년~)
 - 다만, 이 과정에서 기술금융이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
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※ "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술평가
방식·절차 등을 표준화"('2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'('20.2.19일))

○ 다만, '기술금융 가이드라인'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
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,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
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다들 다 지레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